

쓰타 온천: 천 년에 걸친 온천의 역사

역사 있는 탕치장

쓰타 온천에 관한 역사상 최초의 기술은 1147년에 된 것으로 거의 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헌에는 온천과 그 근처에 있는 이용자를 위한 작은 탕치장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온천물이 상쾌하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느낀 현지 사냥꾼이나 숲 장인이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천은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켰지만, 겨울이 혹독해 상설 건물은 짓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료칸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일본 목수가 가진 고도의 기술이 도입되어 온천 근처에 더욱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897년, 오가사와라 시로를 비롯한 현지인들이 건물 중 하나를 보양 온천장으로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시설에서 여행자들이 숙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자의 대부분은 도와다 호수에 진좌한 도와다 신사를 참배하는 순례자이며, 이들은 기뻐하며 따뜻한 물로 지친 몸을 달랬습니다. 그 후 오가사와라는 아내 나카와 함께 단독으로 경영을 맡게 되었고, 전통적인 온천 료칸을 열었습니다. 1918년에 완공된 쓰타 온천의 목조 본관에는 현재도 당시의 현관과 객실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며 평판을 듣고 증가한 여행자가 숙박할 수 있도록 몇 년에 걸쳐 증축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

이 온천에서는 초기부터 약사여래라는 불교의 신이 모셔져 있었다고 생각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약사여래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불교의 존격(尊格) 중 하나로 병을 고치는 부처입니다. 온천은 예로부터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귀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온천과 약사여래의 연관성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료칸 근처에 있는 작은 불당에는 약사여래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